

# 순천시, '참여·보호·성장' 맞춤형 청소년 정책 펼친다

5개 분야 47개 사업 본격 추진  
참여·권리 보장 등 343억 투입  
위기청소년 맞춤형 자립 지원  
교육발전특구 기반 인재 육성

전라남도 순천시가 참여와 보호, 성장을 아우르는 청소년 정책을 펼치기 위해 340억원 규모의 47개 사업을 추진한다.

15일 순천시에 따르면 최근 개최한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청소년을 위한 정책 방향 논의한 끝에 약 343억원 규모의 '2025년 순천시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기본계획인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립됐으며 청소년 참여·권리 보장, 위기청소년 맞춤 지원 강화,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청소년정책(맞춤형교육) 총괄 조성 등 총 5개 분야, 47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됐다.

먼저 시는 청소년의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해 진로체험과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청소년정책 참여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지난해 순천시 오전그린광장에서 청년공동체가 '가을소풍 in 오전' 행사를 열고 시민들에게 체험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선비문화체험학습관을 통한 청소년들의 인성·예절교육,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및 관현악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 동아리 육성 등을 통해 예술·문화 활동을 활성화하고, 저소득 유·청소년 600명에게 월 10만5000원의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지원하는 등 체육활동을 강화한다.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 등 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자원봉사 동아리 활

동을 장려하고,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전인적 성장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방과 후 아카데미를 연중 운영한다.

이와 함께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참여하는 청소년운영위원회(2개 위원회, 30명)와 청소년정책 제안 및 수립에 참여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1개 위원회, 18명)를 운영하며 청소년의 사회참여 기회도 확대하고 있다.

시는 위기청소년 보호와 자립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망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계획이다.

위기청소년 1:1 찾아가는 상담,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 우울 선별검사와 고위기 청소년 대상 사례 관리로 청소년 안전망을 강화할 방침이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1388 전화상담과 집중심리클리닉을 운영하며, 부모교육도 월 1회 이상 확대해 가정 내 소통 강화를 돕는다.

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교육, 직업체험, 자립지원, 검정고시 대비반 등을 운영, 학교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청소년의 올바른 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유해환경 차단에도 힘쓴다.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담상담사를 배치해 상담·치료 지원과 심리검사 등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치유캠프도 운영할 계획이다.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성교육, 성폭력·폭력 예방 교육과 피해자 상담을 지원해 2차 피해와 학업 중단을 예방할 방침이다.

교육발전특구 기반 맞춤형 교육 확대에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한다.

시는 지난해 교육부 공모사업인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으로 최종 선정됨에 따라 올해 교육발전특구와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130억원 규모의 총 50개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연계통합돌봄, 순천형 창의인재양성, 정주형 특화교육을 중점으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해 교육의 질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순천형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취업과 창업을 지역에서 이어갈 수 있도록 문화콘텐츠 및 생태 기반 교육시스템을 마련한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순천의 오늘이자 내일의 청소년을 위해 청소년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키우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 여수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추가 증정'

7개 공급업체 자발적으로 마련

전라남도 여수시가 가정의 달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한 기부자에게 감사함을 전하기 위해 일부 인기 답례품을 추가 증정하는 이벤트를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

15일 여수시에 따르면 이번 이벤트는 관내 7개 답례품 공급업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마련된 것으로, 각 업체는 답례품 증량 또는 사은품 증정 이벤트를 제공한다.

시는 지난 설 특별전으로 동일 이벤트를 진행한 결과 참여율이 높았던 만큼 이번에도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가 증정품으로는 씨앗비빔장갑, 갓김치, 고등어, 참돔, 부세굴비, 서대, 육수용 디포리 등이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향사랑e음' 누리집 내 답례품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 연간 2000만원 이내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10만원 이하 전액, 초과분 16.5%)와 함께 기부금액의 30% 이내를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부는 전국 농협 창구뿐만 아니라 '고향사랑e음' 누리집, 민간플랫폼 '위기브', 은행 앱 등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 여수=이경기 기자

## 고흥군, 나로도여객선터미널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전라남도 고흥군은 민원인의 편의 증진과 행정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나로도연안여객선터미널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임야)대장, 어선원부 등 100여종의 제증명 서류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관공서 외부 설치 특성상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동산등기부등본은 발급이 제한된다. 발급기 운영 시간은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이번 설치로 터미널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은 물론, 관광객들도 시간 제약 없이 필요한 민원서류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고흥=심정우 기자

## 한국 최초 창작 오페라 '춘향전', 22일 장흥서 공연

전라남도 장흥군은 현재명의 오페라 '춘향전'이 오는 22일 오후 7시 장흥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무대에서 펼쳐진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2025년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 선정에 따라 진행된다.

'춘향전'은 남녀노소 누구나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한국적 음계, 선율, 리듬으로 서양 음악의 특성과 한국 전통 음악 요소를 접목해 연출한 우리나라 최초의 창작 오페라다.

총 5막으로 구성된 오페라 '춘향전'은 춘향역에 소프라노 이예니, 이도령 역에 테너 하세훈, 사도역에 바리톤 박현석, 월매역에 메조 소프라노 신선희, 방자역에 테너 박병준, 향단이역에 소프라노 차근영이 참여해 열연할 예정이다.

티켓 예매는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와 장흥문화예술회관 현장 예매를 통해 할 수 있다. 관람료는 전석 1만원이며 장흥군민은 50% 할인된 5000원으로 구매할 수 있다.

장흥=김전환 기자



지난 9일 광양시 내천·항월 경로당에서 죽천보건진료소 노인 피부건조증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어르신들이 경로당 발 마사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광양시 제공

## 광양 죽천보건진료소, 노인 피부건조증 예방사업

전라남도 광양시 죽천보건진료소는 최근 내천·항월 경로당에서 노인 피부건조증 예방을 위한 '우리마을 건강중점소'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5일 밝혔다.

'우리마을 건강중점소'는 어르신의 피부건조증을 예방하고 일상 속 건강 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맞춤형 건강 증진 프로

그램으로, 총 6회기에 걸쳐 진행됐다.

프로그램은 피부 노화와 건조 원인 교육, 보습제 사용법, 손·발 마사지 실습, 영양 및 근력운동 교육 등으로 구성된 경로당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죽천보건진료소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을 앓는 어르신이 많은 점을 고려해 발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매일 보습

제를 바르고 스티커를 붙이는 '습관 형성 속제'를 제시한 결과, 손주의 도움을 받거나 일기를 쓰는 등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졌다.

프로그램 전후 설문조사 결과 사전에는 2명만이 하루 2회 이상 보습제를 사용한다고 응답했으나, 사후에는 15명이 해당 습관을 실천하고 있다고 밝혀 긍정적인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참여자는 총 25명이며, 평균연령은 80.7세였다.

광양=안영준 기자

## GS칼텍스, '인구문제 인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GS칼텍스 여수공장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전국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등이 릴레이 방식으로 참여해 인구구조 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됐다.

지난해 10월부터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기관들이 참여해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GS칼텍스는 이날 '아이들은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GS칼텍스가 함께합니다'라는 메시지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임직원들이 캠페인에 동참해 의미를 더했

다.

캠페인에 참여한 진기섭 설비공장은 "저출생과 고령화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라며 "GS칼텍스 또한 기업 시민으로서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정책 실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강조했다.

진 공장장은 다음 캠페인 참여자로 여수경찰서 박규석 서장을 지목했다.

여수=이경기 기자